

# 광양제철 세계 3위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 도약

## 2017년 연산 250만t 규모

오는 2017년 포스코(POSCO) 광양제철소가 세계 3위의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로 거듭난다.

포스코는 “올해들어 광양제철소에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연산 50만t 규모의 7번째 자동차용 아연도금 강판(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 라인을 신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품질향상과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초일류 제철소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현재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6개 설비에 총 200만t 생산능력을 보유 중이며, 2017년 상반기에 7번째 라인이 완공되면 총 250만t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광양제철소 전경

### 올 3000억 투자 7번째 라인 신설 설비 강화로 독보적 경쟁력 확보 일본 신일철주금 턱밑까지 추격 안동일 소장 ‘도시락 미팅’ 소통 광양쌀 사주기 등 지역상생도 앞장



안동일 소장

이달 초 제11대 광양제철 소장으로 취임한 안동일 전무는 신년사를 통해 ‘위대한 제철소’를 구현하기 위해 임기중 역점적으로 추진할 ▲연산 50만t 생산규모의 7번째 자동차강판 라인 착공 ▲일터가 안전하고 삶이 행복한 ‘POSCO 더 그레이트(the Great)’ 실현 ▲설비 최적상태 유지를 통한 설비 본원경쟁력 강화 ▲수익성향상 활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 ▲메일과 도시락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 등 5가지 경영방침을 밝혔다.

◇2017년 상반기 250만t 자동차강판 생산=우선 광양제철은 연산 50만t 규모의 7번째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신설을 통해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동차강판은 세계적 절감산업 불황 속에서도 수요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자동차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수익성도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강판 생산규모는 포스코 전체 생산량(830만t)의 24%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광양제철이 쌍용자동차와 개발 초기부터 협력해 고장력강판 72%를 적용한 신차 SUV ‘티볼리’는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안 소장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 강조하며 2015년을 ‘자율 안전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일터가 안전하고 삶



자동차에 사용되는 강판 모형.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이 행복한 POSCO 더 그레이트(the Great)’를 실현할 것을 선포했다.

자기 주도의 안전 활동인 ‘안전 SSS(Self-directed Safety Spread) 활동’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나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비 최적상태 유지를 통한 설비 본원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재 광양제철소는 20년이 넘는 노후 설비가 많은 만큼 설비 본원능력 강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인식하고, 포스코 고유의 혁신활동을 강화한 ‘QSS+’(Quick Six Sigma)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비 개선활동을 통해 경쟁사 대비 광양제철만의 독보적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

광양제철은 ‘수익성향상 활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양제철소가 전사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만큼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등의 수익성 향상 활동에 더 큰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연료와 원료의 원단위 저감과 에너지설비 효율 향상 등의 다양한 원가절감 활동들을 통해 광양제철소만의 확고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제철소장이 직원과 ‘소통’을 다짐하며 경계와 칸막이를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진정한 소통을 이루도록 앞장서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역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메일과 도시락 미팅으로 직원과 소통=특히 안 소장은 취임 후 정기적인 메일과 도시락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안 소장은 지난 5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메일 편지를 통해 취임사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경영철학과 비전을 재차 설명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중국재(材) 저가품의 대량 국내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철강 경쟁력의 근간은 모든 임직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부단한 자기개발과 신체단련 등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진다면 광양제철소 경쟁력은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취임 후 맞은 첫 명절(설날)에도 차를 지내지 못하고 제철소 현장에서 조업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외주사 직원 등 총 5563명에게 광양쌀(4kg)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쌀 풍작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광양지역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며 지역민과 상생하는데도 솔선수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취임 후 곧바로 본격 시작한 부문단위(선강·압연·행정) 업무보고를 도시락 미팅 방식으로 운영하며 직원들과 격의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안 소장은 “품질 부적합률은 고급강을 일반강 관리수준인 3%로 ‘도전적 목표’(Stretch Target)를 설정하고, 올해 목표의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중심으로 돌아가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What→How→Why’ 접근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How’를 하기 위해 ‘Why’를 확인하고 확실한 결과검증까지 재현성을 만들기 위해 ‘Why’를 공고히 하다 보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안동일 소장은 “지난해 817만t의 자동차강판 판매를 통해 유럽의 아르셀로미탈 1500만t과 일본 신일철주금의 1000만t에 이어 세계 3위를 달리는 생산체계를 구축했다”며 “2017년 상반기 7번째 자동차강판 라인이 준공되면 광양제철소는 명실공히 세계를 선도하는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대보름 다같이 즐겨요

### 광양 곳곳 민속행사 다채

정월 대보름(3월 5일)을 맞아 광양시민들의 무사안녕과 행운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펼쳐진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관내 30여개 마을과 단체 등에서 달집태우기, 용지 큰줄다리기, 당산제, 농악놀이, 연날리기 등의 세시풍속 놀이가 재연된다. 달집태우기를 진행하는 마을은 진상면 이천마을과 외곡마을, 신시마을 등 모두 22곳에 달한다.

특히 광양읍에서는 광양문화원 주관으로 풍성한 세시풍속 축제의 장이 열린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옥곡밥 만들기 및 각종 민속놀이 행사가 펼쳐지며,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광양읍 인동송에서 광양문화원까지 거리농악놀이를 통해 행사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에는 광양문화원에서 정월대보름 제례의식을 통해 광양시민들의 무사안녕과 번영을 기원할 예정이다. 또한 태인동 용지 큰줄다리기보존회가 주관하는 줄다리기 행사가 용지마을회관에서 진행된다.

뽕질을 거두어 마을 빈터에서 줄을 드리는 ‘꼬지’, 줄을 매고 물이 마당으로 이동하는 ‘갈비’, 기선을 잡기 위한 ‘진잡이’, 암줄과 솟줄의 고를 거는 ‘고걸이’, 김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와 마지막으로 본 행사인 줄다리기 등 전통민속 줄다리기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봉강면 청년회 주관으로 풍년기원 농악놀이와 달집태우기 석평교차로앞에서 열린다. 광양읍 인사마을과 용두마을에서는 마을당산제가 마련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하수도 관련 신규사업

### 광양시, 3월까지 조기 발주

광양시가 3월까지 하수도 관련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방침이다.

광양시 올해 하수도 공기업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30억원으로, 신규 사업 7건에 대해 81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처리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및 광양 3단계 정비사업에 16억원, 초남 분구에 25억원, 다압 급전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25억원, 신규 사업으로 용장 분구 2억원, 진월 선소리 4억원, 마동 마을마을 하수관로에 1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이전에 모든 사업의 발주를 완료할 계획 아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마쳤다.

특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부족한 용곡 답곡마을의 경우 3월 이전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여름 피서철이 오기 전인 6월 이전에 시운전을 포함한 전 공정을 마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8511
하남	682-8112
화정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예향**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